

# 지방銀, 비효율 점포 없애고 ‘디지털금융’ 분골쇄신

점포관리, 타격 아닌 경영전략차원  
BNK부산銀, 디지털부문 인력 강화  
DGB대구銀, 비대면 대출연계 서비스



(왼쪽부터)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사옥 전경. /각사

지방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준금리 인하 등 겹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비효율 점포 통폐합과 빠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 대부분은 점포 통폐합을 진행 중이다. 전북은행은 이달부터 서울 성북점, 세종시 세종아름점 두 지점을 줄이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울산 공업탑과 성안동, 경남 창원 자은동 지점, BNK부산은행은 경남 창원 팔용동지점, 양산공단지점, 부산 온천3동영업소, 연산자이영업소 등의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대구은행도 지난 3월 대구 동산의료원출장소 영업점 임시종단을 포함해 대구·경북에 지점 4곳을 상반기 중 정리했다.

지방은행의 지점 통폐합 결정은 일시

적인 타격보다는 경영전략 차원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통폐합 결정과 무관하지 않지만 점포 관리는 한 두 달새에 빠르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유동인구, 상권 등의 복합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존 점포를 줄이고 있는 지방은행은 생존을 위해 ‘디지털 금융’을 모색 중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금융권 디지털·

연택트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

BNK부산은행은 지난 1일 인사이동을 통해 디지털금융 대응을 위한 디지털·IT 부문 인력을 강화했다. 승진 명단에 IT개발부, IT기획부 등을 포함하면서 IT부문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인사 강화에 대해 “코로나19사태로 언택트 비즈니스를 경험한 고객들의 니

즈가 금융산업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 일상화시킬 것”이라며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로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 5월 ‘언택트 영업부’를 신설했다. 기존 디지털 전략부는 전략·기획에 집중하고, 비대면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새로

게 꾸렸다. JB금융지주도 계열사를 합쳐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열사인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디지털 총괄 조직을 신설하며 책임자로 박종준 상무를 선임한 바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금융분야 사업자로 선정돼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 개인 운전 정보, 주유 정보, 차량 정비 정보 등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DGB대구은행도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활로 모색에 나선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중개 플랫폼 ‘아실’과의 협업을 통해 비대면 대출 연계 서비스도 선보였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새 주인 찾는 저축銀 “M&A규제 풀어달라” ‘개정 특금법 대응 컨퍼런스’ 성황리

JT·민국·대원저축銀 등 매물로  
영업구역 다른 은행간 합병 제한  
금융당국, 규제체계 개편방안 마련



저축은행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알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 소형 저축은행들은 물론 경기권 저축은행, 일본계 저축은행까지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어 금융당국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JT트러스트그룹이 JT저축은행 지분 100% 매각에 나선다. JT트러스트그룹은 JT친애저축은행과 JT캐피탈, JT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둔 일본계 금융사다.

JT저축은행은 현재 경기와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은 1조4164억원, 순이익은 181억원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나온 저축은행 매물 중에서는

고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이 제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방저축은행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M&A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혁신경제 방안’을 발표하고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은행을 뛰어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진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영업지역 규제를 형평성있게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저축은행의 M&A를 허용하되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이후 저축은행들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M&A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NH농협銀-태평양-હે슬란트

실질적 쟁점 논의, 업계 의견 공유

NH농협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중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헤슬란트, 태평양과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했다. 금융·법률·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뤄졌으며, 개정 특금법의 실질적인 쟁점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이날 발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태평양 신제윤 고문, 전 금융위원장)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은행의 디지털자산커스터디서비스(농협은행류창보 파트장)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지난 1일 태평양 신제윤 고문(전 FATF 의장, 전 금융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망(હે슬란트 노진우 대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 및 절차(KISA 이상무 팀장, 태평양 황선철 고문) 등으로 진행됐다.

또 금융감독원 이해봉 자문역은 ‘규제로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의 진행으로 금융·법률 업계 패널과 가상자산 사업자 패널간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도 열렸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효과적인 금융 솔루션 ‘고정지출 월납관리’

신한銀, 데이터 기반 디지털 자산관리

신한은행은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정지출 월납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정지출 월납관리 서비스는 고객이 등록한 금융기관의 계좌거래, 카드내역 등을 분석해 통신비, 대출이자, 학원비, 자동납부 등 매월 반복적인 지출을 꼼꼼히 살펴 자가 진단하고, 통신요금 추천과 정기결제 관리, 할인카드 추천 등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내 통장 리포트 요약 ▲정기지출분



석 ▲지출관리솔루션 ▲소비컨설팅 요약 등의 흐름으로 지출의 종합리프트를 제공해 고객이 한눈에 고정지출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불필요한 지출을 선택하면 연간 절약되는 금액을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알 수 있다. /안상미 기자

### 신한카드

터치결제 이용 1000만건 돌파

신한카드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신한페이판 터치결제(터치결제)’ 누적 이용 1000만건 돌파를 기념해 ‘덕분에 천만’ 행사를 진행한다.

터치결제 서비스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협업해 신용카드사 최초로 개발한 모바일 기기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LG전자 주요 스마트폰으로도 터치결제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한페이판 앱으로 실물카드 없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영석 기자

## 우리銀 “보이스피싱 앱 탐지… 자동차단”

일 평균 접근 2000여건

우리은행은 모바일뱅킹 ‘우리원(WON)뱅킹’에서 보이스피싱 악성앱 자동 차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해 스마트폰에 악성앱 설치해 스마트폰을 원격조종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보이스피싱 악성앱 탐지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서비스를 통해 일 평균 2000여건의 악성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의 접근이 발견됐다. 그동안은 해당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고객 피해를 예방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에 ‘자동중단’ 기능을 추가했다. 우리원뱅킹 실행시 원격제어 앱 등 악성앱 활성화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해 부정이체를 차단한다. 악성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앱에 접속하면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와 함께 앱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정상거래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용고객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실행 중단해야 한다.

/이영석 기자